

호남풍수설화의 전승집단 의식

김 현 숙(조선대강사)

<목차>

1. 서 론
2. 풍수설화의 유형분류
3. 유형별로 본 전승집단 의식
 - (1) 지관이야기
 - (2) 수용자이야기
 - (3) 명당이야기
4. 결론

1. 서 론

풍수설화란 풍수설을 근거로 하여 地德이나 조상의 陰德으로 후손이 복록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야기이다. 민간신앙의 하나인 풍수설은 음양을 포괄하여 주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특이한 신앙형태¹⁾로 우리 민족의식과 문화 저변에 깊게 인식되어 전승되고 있다.

또한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한 生氣論과 感應論이 그 요체로 세상 만물은 음양의 기가 활동함으로써 생기며, 그것이 땅 속으로 들어가 만물을 낳고 기르는 생기가 된다. 이 생기가 지맥을 따라 흐르다가 결집된 곳이 明堂이며 이곳에 집을 지으면 사는 사람이 감응하여 집안이 잘되고, 또 묘를 쓰면 생기가 백골에 감응하여 후손이 발복한다고 믿는다.²⁾

1) 강중탁, 『한국문화학과 풍수설』, 백문사, 1988, 11면.

2) 최운식, 「설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풍수의식」, 『한국의 풍수문화』, 2002, 99

이처럼 풍수란 산수가 신비로운 생기를 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생활의 배후에서 길흉화복을 좌우한다고 믿고, 거기에 인간과 사령을 일치조화시킴으로써 복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하나의 俗信이다.³⁾

풍수사상은 설화 속에서도 풍수설화라는 커다란 이야기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풍수설화에 나타난 풍수설은 ‘명당을 통한 복록 추구’라는 기본 인식을 근간으로 하지만, 복잡하고 난해한 풍수이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형적인 풍수이론의 영역과는 다른 형태로 풍수사상을 인식하고 향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풍수설화는 전국적으로 강한 전승력을 가지고 회자되고 있으며, 이미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총체적인 모습이 발표되고 충분히 연구되었다.⁴⁾ 그러나 이런 총체성 속에서 각 지역별로 풍수설화를 받아들이고 향유하였던 변별적인 특성에는 소홀한 면이 보인다. 하나의 각 편 이야기들은 청중들의 공감을 획득할 때 지속적으로 전승되며, 이런 유형은 전승되어온 당대의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만나 새롭게 해석되면서 변이되기도 하고 공존하면서⁵⁾, 그 지역민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에 맞추어 이야기는 생성 변모해 갈 것이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설화일지라도 호남인의 삶에 대한 인식에 따라 또 다른 모습으로 설화가 전승되고 생성 변이과정을 거쳤으리라 기대한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전국에 분포한 풍수설화 가운데 호남 풍수설

면

3) 이희덕, 『한국사상의 원천』, 박영사, 1976, 82면

4) 풍수설화연구는 손진태를 단초로 하여 장덕순, 류증선, 최래옥, 강진옥, 현길연, 박용식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수봉, 강중탁, 신월균, 손정희, 장장식 등에 의해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5) 강진옥, 「전설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사연구』, 1996, 39면.

화 분포를 산출하여 이를 비교, 대조의 방법으로 전승집단의식의 일면을 정리하려 한다.

먼저 풍수설화를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한 후, 이 유형 설화들 가운데 호남풍수설화가 차지한 전승 자료수와 전국에 조사된 설화의 자료수를 분리하여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풍수설화의 자료는 비교, 대조의 형평성을 위하여 『구비문학대계』로 한정하였으며, 931수를 찾을 수 있었다.⁶⁾

2. 풍수설화의 유형분류

설화 분류 목적은 많은 자료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때문에 분류한 유형이 복잡하고, 가지 수가 많거나 너무 단순화해서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면 분류의 의의는 감소된다.⁷⁾ 따라서 이야기의 실상에 부합하면서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갖는 동시에 가지 수가 적절하다면 만족한 분류이고,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론상으로 분류의 필요성이 확연하지만 실제 분류에 들어가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풍수설화 선행자들은 풍수설화분류에 많은 노력과 개선을 시도하였다.⁸⁾

그럼에도 모든 설화를 하나의 기준으로 포괄 서술하기 어려운 것은 기존의 선행된 설화 분류에서도 자주 논의 되었으며, 풍수

6) 신월균은 전국의 풍수설화 1217편을 조사해서 발표했다. 이 중 『구비문비문학대계』에서 추출한 풍수설화는 총 931편이었다. (신월균, 『한국풍수설화의 서사구조 의미와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7) 조희웅, 『설화학 강요』, 새문사, 1989, 46면.

8) 풍수설화 유형분류는 조희웅을 시작으로 장덕순, 박용식, 임갑량, 이수봉, 강진옥, 강중탁, 신월균, 손정희, 장장식을 거치면서 분류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개선되기에 이르렀다.

설화처럼 이야기가 방대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풍수설화는 묘터나 집터를 점지하는 지관과 제공받는 수용자(상주)와 명당의 응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므로,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도 3요소가 하나의 이야기에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기에 구연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구술하는지 고려되어야 한다.

곧 명지관에 관심을 두는지, 발복에 관심을 두는지, 혹 상주가 명당을 얻게 되는 동기·과정에 관심을 두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상주가 지관에서 명당을 수여 받는 과정에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명당획득담’이지만, 수여받은 후의 발복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면 이는 ‘명당발복담’에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풍수설화의 분류에 있어서 ‘지관, 상주, 명당’의 3요소를 기본으로 삼고 지관의 활동과 결과, 수용자의 명당 획득과정, 명당의 응험 등을 고려해서 분류하였다.

지관이야기는 명지관담과 가짜지관담으로 나누고, 명지관담에서는 명지관이 된 유래, 명지관의 활약, 명지관의 실수를 중심으로 나누었다. 가짜지관담은 실패나 실수담은 보이지 않고 성공담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위계성공형과 이인도움형으로 구분했다.

수용자이야기는 상주의 명당획득여부에 관한 이야기로 명당획득담과 발복담으로 분류한 후, 명당획득담의 하위항은 명당을 차지하게 된 동기를 기준으로 적선·적공형, 우연형, 계략탈취형, 동물보은형, 상쟁형으로, 명당발복담은 명당발복양상에 이야기의 초점이 놓여있는 유형 - 즉, 금시발복형, 사자생손형, 신분상승형, 악인불용형으로 구분하였다.

명당이야기는 금기를 지키지 않아 명당이 파손되거나 과욕으로 명당을 지키지 못한 경우, 외부인에 의한 단맥·단혈의 이야기로 명당 파손담이라 지정하였으며, 풍수설에 의해 허한 곳을 인공적

으로 보완하거나 악운이 서린 지형에 인위적인 조형물을 쌓아 결함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악운을 눌러 명당을 만드는 내용을 명당 비보담이라 구분하였다.⁹⁾

1. 지관이야기

1) 명지관담

(1) 명지관유래형 (2) 명지관활약형 (3) 명지관실패형

2) 가짜지관담

(1) 위계성공형 (2) 이인도움형

2. 수용자이야기

1) 명당획득담

(1) 적선·적공형 (2) 동물보은형 (3) 우연형 (4)계략탈취형
(5) 상쟁형

2) 명당발복담

(1) 금시발복형 (2) 사자생손형 (3) 신분상승형
(4) 악인불용형

9) 이의 분류유형은 장장식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하였다. 장장식은 선행 분류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분류에 허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매우 고심한 자취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선행연구에서 보인 문제점을 아우르고 통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분류작업을 시행한 결과 풍수설화를 유형이 잘 정리되어 있다. 단지 하위항의 치밀한 세분화가 간편화라는 분류목적에 벗어나 있어서 본고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명당획득담’의 하위항에 ‘失遺骨型’은 상주가 뼈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흙친도독이 아무곳에 묻었는데, 우연히 명당을 얻은 경우로 보고 필자는 ‘우연형’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또한 ‘유언이행형’을 명당획득담의 하위항에 분류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야기가 가지는 성격을 감안하여 ‘명당발복담’에 두었다. ‘계략탈취담’ 경우 탈취의 행위소에 비윤리성을 기준하여 ‘명당획득담’과 변별적으로 독립항을 이루고 있으나, 이것 역시 명당을 획득한 결과론적 사실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명당획득담’의 하위항에 설정하였다. (장장식,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 민속원, 1995, 28-40면.)

3 명당이야기

1) 명당파손담

(1) 금기위반형 (2) 단막형

2) 명당비보담

3. 유형별로 본 전승집단의식

본 장에서는 전국에서 채록된 풍수설화의 자료와 그 중 호남풍수설화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 대조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에 따라 이야기군의 성격을 파악하고 호남 전승집단의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풍수설화는 앞에 언급한바와 같이 『구비문학대계』로 한정하였으며, 기존에 연구조사 한 신월균의 자료를 참고하되 본고의 분류기준안에 근거하여 자료를 침삭하였다.

각 유형별로 자료의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조사된 풍수설화는 대상자료 총 931수 중 ‘지관이야기’ 210편, ‘수용자이야기’ 488편, ‘명당이야기’ 233편으로 분류하였으며, 931편 가운데 호남풍수설화는 246편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풍수설화가 전승되었다.¹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관이야기 62편, 수용자이야기 150편, 명당이야기 34편이다.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A.

유형	지관이야기	수용자	명당이야기	계
----	-------	-----	-------	---

10) 『구비문학대계』에서 조사한 풍수설화 931편중에 호남지역에서 조사된 설화는 246편이었다. 본고에서는 이의 호남지역 풍수설화를 따로 조사 발췌하여 살펴보았다. 물론 다른 지역의 풍수설화 전편을 조사해 보지 않은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풍수설화의 화소가 대동소이 한 점과 기존의 선행된 연구논문의 성과에 의지하여 호남 지역의 변별성을 추출하였다. 본고는 자료의 분포도에 따른 경중으로 전승집단의 내재된 의식을 읽어보려 시도하였다.

지역			이야기		
전국	자료수	210	488	233	931
	%	23%	52%	25%	100%
호남	자료수	62	150	34	246
	%	25%	61%	14%	100%

<표 3-1>

B. 각 유형별 전국 자료 수에 대한 호남 자료수의 비율.

지역	유형	지관 이야기	수용자 이야기	명당 이야기	계
	전국		210	488	233
호남		62	150	34	246
	%	30%	31%	15%	26%

<표 3-2>

풍수설화에서는 명당의 획득여부와 동기에 관심을 둔 ‘수용자 이야기’가 많은 전승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호남에서도 마찬가지로의 현상을 보인다. 오히려 호남이 명당획득의 주체인 수용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이야기군 형성 분포를 대조해 볼 때 전국적으로 ‘지관이야기’와 ‘명당이야기’가 대등하게 나타나는 반면, 호남에서는 ‘지관이야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명당이야기’의 전승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볼 수 있다.(표 A 참조)

이런 현상은 B의 도표를 볼 때 더 확연히 드러난다. ‘지관이야기’가 ‘명당이야기’보다 전국의 자료수와 대비해 볼 때도 많은 전승력을 드러내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설화가 전승집단 의식의 일면을 대변하는 도구이며, 같은 원형을 지니고 전승이 시작되었을지라도 구연자와 청중 사이에 전이되는 과정이나 그 지역의 제반 문화나 역사 인식에 따라 설화는

변이될 수 있다. 어떤 한 유형의 이야기가 특정한 지역의 향유층에 의해 강한 전승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 전승집단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 전승되는 풍수설화는 타 지역과는 변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지역민의 내재된 의식을 대변하리라 기대한다.

다음에서 하위유형의 풍수설화 분포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호남전승집단의 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지관이야기

풍수설화에서 개인의 길흉화복은 명당에 달려 있으며 지관에 의해 상점 되는 것이므로, 지관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관 이야기에 도 명당을 갈망하는 상주와 명당의 응험의 유무가 이야기 속에 동시에 전개되고 있으나 구연자의 진술 핵심이 ‘지관의 활약이나 유래’에 중점을 둔 것을 지관 이야기로 분류하였다.

명지관담은 ‘어떻게 해서 지관이 되었다’라는 지관이 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진술된 이야기를 ‘명지관유래형’으로, 지관으로서 비범한 능력을 보이면 ‘명지관 활약형’, 명지관의 자질로 명당상점에 성공해야함에도 명당상점에 실패한 이야기를 ‘명당실패형’으로 나누었다.

또한 가짜 지관담은 풍수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지관 행세를 하면서 명당 상점에 성공한 이야기이다. 이는 ‘어떻게 성공하느냐’의 행위 양식에 비추어 ‘위계성공형’과 ‘이인도움형’으로 구분된다.

A.

상위유형	하위유형	전국 자료수	%	호남 자료수	%
------	------	-----------	---	-----------	---

명지관담	명지관유래형	14	6%	5	8%
	명지관활약형	61	29%	14	23%
	명지관실패형	50	24%	17	27%
가짜 지관담	위계성공형	35	17%	14	23%
	이인도움형	50	24%	12	19%
소 계		210	100%	62	100%

B. 각 유형별 전국 자료 수에 대한 호남 자료수의 비율.

상위유형	하위유형	전국 자료수	호남 자료수	%
명지관담	명지관유래형	14	5	36%
	명지관활약형	61	14	23%
	명지관실패형	50	17	34%
가짜 지관담	위계성공형	35	14	40%
	이인도움형	50	12	24%
소 계		210	62	30%

‘지관이야기’에서 전국 분포와 사뭇 다른 현상을 보여준다. 호남은 명지관의 활약보다는 명지관이 된 유래와 명지관으로 실패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또한 ‘가짜지관담’의 경우에서 ‘위계성공형’이 ‘이인도움형’보다 더 많은 전승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살펴서 호남전승집단 의식과 특성을 고찰해보겠다. 11)

먼저 ‘가짜지관담’에서 주인공은 있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제적으로 극도로 궁핍한 현실에 처해있다. 이런 생계를 연명조차 힘든 막다른 현실 극복을 위해서 부인의 권유나

11) ‘위계성공형’이란 풍수술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는 가짜 지관이 탄로 날 위기에서 순간의 재치와 배짱으로 명당 상점에 성공한 이야기이며 ‘이인도움형’은 동일한 위기상황에서 타인의 도움으로 명당상점에 성공한 것을 말한다. 다른 지역에서 ‘이인도움형’ 이야기 전승이 많은 반면 호남에서만 ‘위계성공형’ 이야기가 두드러지게 강한 호응을 얻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의 결정으로 패철을 차고 집을 떠난다. 풍수술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여, 상갓집에서 묵묵히 있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명지관으로 오인을 받게 되고, 여러 날을 상주에게 대접 받으며 지내다가 명당을 상점하러 가야하는 날에 이르게 된다. 이 위기의 순간, 옥황상제의 심부름꾼이나 복두칠성 또는 은혜를 입은 동물의 도움으로 명당상점에 성공한 이야기가 ‘이인도움형’이다.¹²⁾

여기에서 하늘의 도움이나 우연히 타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미 자체가 운명론적 자세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위계 성공형’의 이야기는 명지관으로 오인을 받아 상갓집에서 여러 날을 환대 받으며 지내면서, 가짜 지관은 도망칠 궁리만 하던 중 求山 날이 되자 산에 명당 상점하러 올라간다. 산에 오르다 도망치기 좋은 장소가 나오자 막무가내 달려간다. 그러나 지관이 명당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뒤쫓아 온 주인에게 붙들리거나 넘어져 도피에 실패하고 만다. 이 위기의 순간 주인공은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는데 ‘넘어진 자리가 명당’이라는 것이다.¹³⁾

단순히 막연한 명당이 아니라 將軍出戰形, 渴馬陰水形, 金鷄抱卵形 등 그럴듯한 풍수용어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인다.

12) 『구비대계』, 선비의 지관 행세(5-4, 113면), 엉터리 지관이 잡은 명당(5-6, 736면), 엉터리 지관과 호랑이 명당(5-7, 171면), 팔삭동이 난 명당터(6-11, 347면), 하늘이 도운 착한 사람(5-5, 633면), 도사가 도와 준 풍수(6-5, 336면), 엉터리 지관(5-7, 423-425면)

13) 『구비대계』, 가짜 풍수노릇을 한 셋째 아들(5-2, 445면), 엉터리 풍수(5-5, 321면), 명당 잡은 가짜 풍수(5-5, 716면), 명당 써놓고 잠적한 가짜 지관(5-6, 107면) 무식한 지관의 출세담(5-7, 77면), 가짜지관(5-7, 105면), 엉터리 지관(5-7, 423면), 엉터리 풍수(6-4, 411면) 대명당 잡은 가짜 풍수(6-4, 500면), 엉터리 풍수(6-4, 934면), 우연히 명당잡은 풍수(6-9, 85면), 엉터리 풍수가 잡은 명당(6-12, 754면), 엉터리로 명당자리 잡아주고 부자된 게으름뱅이(6-12, 971면).

이처럼 가짜임이 탄로 날 위기 직전 주인공이 보여주는 배짱과 임기응변의 기지를 호남 전승층은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

영터리로 잡은 묘자리가 명당이었다는 사실이 우연이지만, 현실 상황에 과감히 도전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주인공의 적극성은 운명적인 자세이기보다 반운명적인 사고가 돋보인다 할 수 있겠다.

삶을 인식하는 태도는 크게 운명론과 반운명론적 세계관으로 대별된다. 반운명론은 삶의 문제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그에 반해 운명론은 삶의 문제를 자신과 무관한 주어진 운명으로 돌리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유보하는 태도이다. 오직 하늘의 뜻으로만 해결하려는 안주의식만 존재한다.¹⁴⁾

이렇게 볼 때 풍수설화에 나타난 명당을 통해 현실을 해결하려는 전승층의 의지는 분명 운명론이다. 그리고 가짜 지관이야기 역시 운명론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의 실상은 운명론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주어진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되 새로운 운명의 전개 가능성을 또 하나의 운명으로 수용하고 가짜지관으로 탄생한다. 스스로 앞서서 하늘이 내려 줄 복을 기다리지 않고 길을 떠남으로 좀 더 나은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는 운명론적 세계관이기보다 자신의 운명의 전환점을 찾아 나서는 용기에서 반운명적이며,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위계성공형’의 이야기는 神人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위기를 헤쳐 간다는 의미에서 반운명적성격이 강하게 표출된다. 호남에서는 ‘이인도움형’ 전승이 약하고 ‘위계성공형’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게 향유되었다는 것은 호남전승집단의

14) 장장식, 앞의 책, 171면.

반운명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명지관유래형’은 ‘어떻게 해서 지관이 되었다’라는 지관이 되는 과정 중심으로 진술된 이야기이다. 본고에서 조사한 바로는 수련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와 초월적인 힘을 얻어 지관이 되는 이야기로 나누어진다. ‘명지관유래형’의 경우 박상의, 도선, 이의신, 성지와 같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설화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다. 명지관이 되기 위해서는 10년을 배워야하며 9년 밖에 채우지 못했을 때 명당상점에 실패를 하고 다시 돌아가 10년을 채운다는 이야기와 여우로 둔갑한 처녀로부터 여우구슬을 빼앗아 입에 물고 무서워서 땅만 쳐다보았더니 땅의 이치를 알게 되었다는 지술획득 이야기가 그것이다.¹⁵⁾

여기에서 지술이란 인간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우구슬이라는 신비한 매개체를 통하여 하늘이 내려주는 초월적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수련중심이야기 역시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자만 행위이요, 불완전한 앎이다. 10년 기한은 인간 한계의 심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그만큼 지술은 하늘이 내린 것이기에 획득하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승층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복록을 누리는 묘지나 택지를 상점하는 행위는 단순한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신성한 것이기에 지관들 또한 그러한 자질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다. 곧 지관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능력을 주거나 인간 한계의 기간을 극복한 자만이 명지관으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전승층의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명지관실패형’이 호남에서 많은 전승을 보임은 이에 기인한다. 이야기 안에서 도선, 남사고, 박상의, 무학은 명당상점에 실패한

15) 『구비대계』, 지관 박상의의 짧은 지관 노릇(5-2, 293면), 백년묵은 여우와 이주부(6-5, 687면) 이신과 여우구슬(6-5, 274면), 백년묵은 여우구슬(6-5, 359면) 박상의가 지관이 된 유래(6-8, 135면).

다. 전승집단은 이러한 명지관의 실수를 통해서 지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배출하고 있다. 남사고의 실수이야기에서는 자신만을 위한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의 묘를 아홉 번 옮기는 무분별한 지술 시행과 남용으로 하늘의 단죄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 전승집단은 자기만을 위한 지술시행과 같은 그릇된 심성을 버리고, 명지관으로서 땅의 논리뿐 아니라 하늘의 뜻까지 읽을 수 있는 자질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관에 대한 강력한 요구는 호남 지역민들이 지관에게서 받은 피해의식에 연관된 듯하다.

박제가의 『北學議』에 실린 「葬論」에서

“허리에 자오침을 찬 자는 천릿길 나서도 길양식을 갖지 않으며 전라도 일대는 더욱 심하게 나쁜 버릇에 물들어서 열 집이면 아홉사람이 지관 노릇을 한다.”

호남지방에서 명당에 대한 선망의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했던 것 같다. 풍수설화 역시 전국의 풍수설화 분포에 26%의 전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 향유층이 매우 두터움을 의미한다.

호남지방은 너른 평야의 곡창 지대와 풍부한 해산물을 구할 수 있는 너른 바다가 인접해 있으며, 타 지역보다 온화한 기후를 가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백제에 의한 마한의 멸망, 왕건에 의한 견훤의 몰락, 조선시대에 이르러 많은 사화와 당쟁의 소용돌이에서 허우적거림, 그리고 풍부한 물산의 생산은 오히려 중앙 정부의 가렴주구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역사적 억압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호남인은 중앙의 변방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중앙 진출 기회가 미약하였다. 그래서 중앙 관리들의 횡포는 진출의 희구를 부채질하게 되었고, 이런 의욕은 명당 상점을 통해 성취해보고자 하는 기대심

리로 강화되었을 것이다.

명당을 차지함으로 신분상승과 중앙 정부 진출을 기대하는 지방민의 풍수에 대한 선망의식은 많은 지관을 부르게 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지관들의 횡포와 피해 속에서 전승층은 다시 한 번 지관의 자질을 요구하게 되었다. 지관이 시행하는 지술이란 하늘이 내리는 신성한 것으로 함부로 남용하거나 사욕을 채우는 지술이 되어서는 안되며, 타인을 위해 베풀 줄 아는 지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 전승집단의 의식 속에서 ‘명지관유래형’과 ‘명지관실패형’의 전승을 복돋는 계기가 되었다.

(2) 수용자이야기

인간의 복록이 명당 상점의 유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믿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명당을 열렬히 추구하는 수용자에 초점을 두고 전승된 설화가 ‘수용자이야기’이다.

이는 명당을 상점 받는 상주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며 다시 명당을 획득한 과정이나 동기중심, 그리고 획득한 후 발복 과정이 상세히 전개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어떤 상주가 어떻게 해서 명당을 얻었다’는 과정중심의 ‘명당획득담’과 ‘어떤 수용자가 명당을 얻어 어떻게 발복하였다’는 발복 현상에 초점을 둔 ‘명당발복담’으로 크게 나누어 살폈다.

‘명당획득담’은 상주가 의도적이건 아니건 다른 사람에게 적선을 하거나, 명당을 얻기 위해 지관에게 정성을 들이는 등의 여러 가지 선행으로 명당상점에 성공한 ‘적선·적공형’¹⁶⁾과 동물에게 은

16) 『구비대계』, 명당에 묘를 써서 의부 은혜 갚은 아들(5-7, 114면) 7대 손의 일까지 내다 본 지관(5-7, 534면), 장가간 첫날 얻은 아들(6-8, 275면), 자손이 잘 된 정성스러운 적선(5-2, 774면) 점심 대접으로 명당 얻어 장가간 머슴(5-5, 378면), 명당 묘자리(6-1면, 312면) 뜰감명당(6-2, 245면) 풍수 지리자 이승과 박승 (6-9, 241면) 젓으로 사람 살린 새댁(6-9, 312면), 애

혜를 베푸는 후 동물에게 명당을 상점 받게 된 ‘동물보은형’¹⁷⁾, 우연히 얻게 된 경우(우연형), 계약적으로 기지를 발휘하여 탈취에 성공한 이야기(계약탈취형), 묘 싸움으로 얻게 된 이야기(상쟁형) 등 다양한 이야기군이 속해 있다.

그리고 명당 발복 자체에 관심을 두고 전승된 ‘명당발복담’은 발복의 성격에 따라 부 - 금시발복형, 귀 - 신분상승형, 색 - 사자생손형으로 구분된다.

A.

상위유형	하위유형	전국자료수	%	호남자료수	%
명당 획득담	적선적공형	129	26%	45	30%
	동물보은형	28	6%	14	9%
	우연형	85	17%	16	11%
	계약탈취형	103	21%	43	29%
	상쟁형	45	9%	10	7%
명당 발복담	금시발복형	15	3%	5	3%
	사자생손형	30	6%	4	2%
	신분상승형	35	7%	10	7%
	악인불용형	22	5%	3	2%
소계		488	100%	150	100%

천 박씨시조 명당 얻기(6-10, 438면), 금시발복 명당(5-4, 191면), 금시발복 명당(5-4, 645면), 임피의 명당 노와봉용(5-4, 880면), 인시하관에 묘시발복(5-5, 27면), 금시발복명당(5-5, 136면), 무주구천동의 유래(5-7, 348면), 금시발복명당(5-7, 733) 등 이외에도 ‘적선·적공형’은 다양한 화소의 이야기가 있다.

17) 『구비대계』, 호랑이가 잡아 준 명당(5-7, 227면), 호랑이와 명당(6-1, 398면), 은혜 갚은 호랑이(6-9, 426면), 호랑이가 준 명당(6-6, 105면), 호랑이가 잡아준 절 터(6-10, 491면), 문화 유씨 시조 할머니 설화(6-11, 162면) 노루가 잡아 준 명당(6-2, 427면), 노루가 잡아 준 집터와 삼족구(6-2, 806면), 부자가 된 나무장수(6-2, 251면), 용이 올라간 명당(6-2, 767면), 역적바위와 명당(6-2, 492면), 용을 도와주고 명당 얻음(6-6, 82면) 등.

B. 각 유형별 전국 자료 수에 대한 호남 자료수의 비율

상위유형	하위유형	전국자료수	호남자료수	%
명당 획득담	적선적공형	129	45	35%
	동물보은형	28	14	50%
	우연형	85	16	19%
	계략탈취형	103	43	42%
	상쟁형	45	10	22%
명당 발복담	금시발복형	15	5	33%
	사자생손형	30	4	13%
	신분상승형	35	10	29%
	악인불용형	22	3	14%
소계		488	150	31%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명당의 획득은 당연한 발복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식으로 ‘어떻게 명당을 상점 받게 되었는지’에 관한 명당획득이야기에 향유층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명당상점에 가장 큰 성공요인은 전국 자료수의 비율에서나 호남풍수설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선·적공형’에 있었다.

이는 인간 윤리의식에 의거하여 선행 후 명당을 상점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명당을 계략으로 탈취함은 보편적 윤리의식에 위배됨에도 호남에서 강한 전승을 보인 것이 특이하다. (B의 도표를 보면 ‘계략탈취형’의 42%가 호남전승임)

또한 ‘명당발복담’에서는 ‘사자생손형’의 이야기가 타 지역에 비해 전승이 현저히 미약함과 우연히 명당을 얻게 된 이야기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전승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전국에서 채록한 자료 중 호남지방에서 두드러지게 강한 전승을 확보하고 있는 ‘계략탈취형’은 지관을 속여서 명당을 얻어내거나, 딸이 친정아버지의 명당을 차지한 이야기, 마을의 당산아래나 타인의 소유 땅이 명당임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서로 눈치 보며 묘를 쓰지 못하는 곳에 대감집 하인이 계략으로 묘를 쓰게 된 이야

기 등 다양한 이야기군이 전승된다.

이 가운데 호남에서 많은 전승을 보인 이야기가 김덕령장군 일화와 관련된 계략 탈취의 이야기다. 중국의 명사가 와서 김덕령 집에 머무르며 천하명당을 발견하고 본국으로 부친의 뼈를 가지러 돌아가자 가로채 묘를 쓰거나, 명당의 응험을 실험하기 위해 달걀을 부탁하니 김덕령의 부친이 삶은 달걀을 주어 명당상점을 포기하게 한 후 명사가 돌아가자 그 자리를 차지한다.¹⁸⁾

이야기에서는 임진왜란 때 역사현장에서 체험했던 중국에 대한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있다. 중국명사가 중국에서 찾지 못한 천하명당을 조선의 무등산에서 찾았다는 것, 중국 명사는 천하명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덕령의 부친에게 패배하고, 명당을 김덕령의 부친이 획득함으로써 호남 민중의 의식 속에 승리는 더욱 커진다. 김덕령은 천하제일의 용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폐쇄된 조선 사회에서 김덕령의 용력은 중앙관리의 시기와 두려움에 의해 반역의 죄명을 씌워 죽게 된 것으로 이야기는 귀결된다.¹⁹⁾

여기에서 표면적으로 호남지방민의 패배가 인정되며, 호남인들의 중앙 정부에 대한 좌절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역사 현장에서 탁월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를 용납하지 못하여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김덕령은 호남인에 의해 영웅으로 재창조된다. 그리고 죽은 지 60년이 지난 뒤에 중앙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해원되기에 이른다.

호남풍수설화에서 김덕령은 명당의 기운을 타고난 위대한 장군이며, 만고충신효자이다. 그리고 김덕령의 죽음으로 순간 좌절했으나 60년 후 해원은 단순한 해원이 아니라, 호남인의 끈질긴 근성으로 만들어낸 영웅화에 기인한다. 결국 호남지방민의 승리인

18) 『구비대계』, 김덕령 장군 일화(5-2, 337면), 김덕령 장군 일화(5-2, 339면), 김덕령을 얻게 된 묘터(6-8, 373면), 김덕령과 계란(6-9, 448면).

19) 임철호, 『설화와 민중의 역사의식』, 집문당, 1989, 134-135면.

것이다. 설령 김덕령이 역사 현장에서 공을 세우지 못했을지라도 현실적인 그의 장군으로서의 가능성은 호남 민중의 의식 속에서 재창조되고 있는 영웅이다.

‘계략탈취형’의 이야기군에서 대감집 하인이 계략으로 명당을 차지하여 양반을 속이는 유형이다. 이는 『구비문학대계』에서 발췌한 6편의 이야기 중 4편이 호남지역에서 전승된 것이다.

마을의 당산이나 공동의 산 또는 다른 사람의 산에 명당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모두 눈치를 보느라 묘를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감집 하인이 그 곳에 나락을 말리는 척 띄우고 자신의 어머니묘를 평장한 후, 나라에서 그 곳에 묘를 쓰려고 하니 거짓 봉분을 쓰자고 꾀를 내어 봉분을 올리고, 비석까지 세워서 명당 덕에 발복한다는 이야기이다.²⁰⁾ 여기에서 전승층은 양반들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권세가를 멋지게 속인 하인의 활약과 계략에 찬탄하며 통쾌감을 느끼고 있다.

호남지방이 가림주구의 온상²¹⁾이라는 논의나 앞의 “호남지역이 풍수에 대한 맹신이 지나쳤다”는 것을 근거로 할 때, 당시의 세도가나 권력층에 의하여 자신의 선영이나 선친의 묘자리를 빼앗기는 일이 빈번했음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수많은 착취와 수탈에 정면 대결할 수 없었던 서민들은 이런 ‘계략탈취형’을 통하여 통쾌감을 맛보고 심리적 보상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지관을 부를 처지가 되지 못한 서민들의 입장에서 부정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명당을 차지하여, 현재의 삶에 전환점을 찾고자 했던 희망이 내재되어 있다. 이들은 명당이 주어지길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계략과 기개로 양반과 대결하여 탈

20) 『구비대계』, 피로 명당 쓴 상놈(5-4, 926면), 피많은 사람(5-7, 359면), 하인에게 빼앗긴 명당(6-3, 232면), 벌이봉의 김씨(6-3, 232면).

21) 나경수, 『남도인의 의식구조』, 『호남전통문화론』, 호남문화연구소, 1999, 45면.

취하는 대담성과 삶에 대한 투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운명을 앓아서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명당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 삶의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반운명적 성격이 드러난다. 이런 반운명적 성격은 ‘적선·적공형’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명당은 하늘에서 우연히 주어지기보다 스스로 덕을 쌓고, 착한 행동과 정성을 통하여 얻을 수 있음을 ‘적선·적공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인간 행위의 결과로 명당을 상점 받게 되므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한다.

물론 전승집단의식 속에 풍수적 관념이 명당 상점을 받아 복록을 누리게 된다는 운명론적 인식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적선·적공형’과 ‘계략탈취형’의 전승이 왕성함은 전승집단의 의식에 운명을 스스로 찾고 개척해 나가는 강인함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명당획득담’에 ‘우연형’의 전승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미약하다는 사실이다.

‘우연형’ 가운데 가장 전승이 미약한 화소가 시체를 굴린다거나, 아무렇게나 묻었는데 명당이었다는 이야기로 전국 자료 수 24편 중 단 1편만이²²⁾ 호남에서 채록되었다. 이 유형의 이야기군 중 호남에서 가장 많이 향유된 것은 죽은 부친(모친)을 따뜻한 시각에 묻기 위하여 해가 위에 뜰 때까지 기다렸는데(살아생전 굶주림으로 고생한 모친에게 음식냄새를 맡게 해 드리려), 우연히 오시하관해야 발복하는 명당이었다는 이야기가 전승된다.²³⁾ 다른 지역에

22) 『구비대계』, 약방풍수도 효성만은 못하다(6-8, 59면)

23) 『구비대계』, 묘 쓴 삼일만에 부자가 되다(5-1, 683면), 명당 얻고 주인집 사위된 머슴(5-5, 253면), 삼정승 육판서 명당(5-6, 222면), 우연히 얻은 명당으로 부귀 이룬 이진사(5-7, 427면), 오시하관에 미시발복 명당(5-7, 687

서 많이 전승되고 있는 ‘아무렇게나 묻어서, 시체를 굴려서’ 또는 ‘시체가 엮어지니 그대로’라는 방법의 인간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보편적 상식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은 호남전승집단에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망인을 조금이나마 위하려는 효차원의 장묘로 우연히 명당을 획득하게 된 ‘우연형’ 이야기가 호남에 전승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서민적이고 착한 심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 본다.

‘명당발복담’은 대체적으로 전승이 미약한 편인데, 주지할만한 사실이 호남에서 ‘사자생손형’은 더욱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나마 다른 지역에서 보이지 않은 변이형태가 보인다.²⁴⁾ ‘사자생손형’은 외아들이 자식도 없이 죽자 사자생손지지에 묘를 쓴 후, 그 곳을 지나던 처녀가 잠시 쉬는 사이 死者의 영혼이 나타나 영교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처녀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희생을 치르게 된다.

호남에서는 후사를 이을 자식 없이 외아들이 죽지만 이미 며느리가 존재하는 이야기가 2편이다. 때문에 처녀들의 예기치 않은 희생은 필요치 않다. 이는 이 유형의 특징인 처녀들의 불합리한 희생을 전승층이 즐기지 않음을 의미한다. 처녀의 근거 없는 희생에 동조하지 않기에 구연층은 이야기 전승과정에서 이미 결혼하여 며느리가 존재한 집안으로 상황을 변이 시켰을 것이다.

여기에서 전승집단의 순후한 성격이 드러난다. 투철한 혈연보존 의식이 뒷받침된 이야기가 소멸의 길을 걷는 이유는 타인의 억울

면), 객사로 얻은 명당(6-4, 220면), 오시하관에 사시발복한 명당(6-4, 690면)

24) 『구비대계』, 현풍곽씨 무자혈손지지 고목생화(5-3, 132면), 사자생손지지(6-4, 462면), 생사혈 잡은 일지승(6-8, 488면), 무자생손지지(5-6, 655면) 이 중 ‘생사혈 잡은 일지승’과 ‘무자생손지지’이야기는 며느리가 있는 경우이다.

한 희생이 의가 아니며 사회윤리에 위배됨을 잘 알기에 설화 향유층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 호남에서 전승력 13%라는 미약함과 변이형의 출현이 위의 논의를 뒷받침한다고 본다.

덧붙이자면 사자생손형의 이야기에 강하게 드러나는 혈연보존의식에 의한 극단적인 이기심이 호남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데 이는 지리적 특성 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경상도와 같이 큰 산맥이 주위로 막혀서, 그 속이 항아리 속 같이 된 지역은 옛날에 교통이 불편해서 외부와의 문물 교류가 잦지 못한 까닭에 인성도 보수적이고 무뚝뚝하고 완고해서, 동적인 면 보다는 정적인 면이 많다. 그러나 전라도처럼 산수가 흩어진 개방적인 지역은 비교적 편리하고 외부와의 교섭도 빈번하여 인성도 그만큼 개방적이고 활동적이며, 사교에 능하다.²⁵⁾

이러한 호남의 지리적 개방성은 보수적인 혈연보존의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와 활발하고 개방적인 인성을 드러내고 있다.

(3) 명당이야기

‘명당이야기’는 명당의 응험을 중심으로 ‘명당파손담’²⁶⁾과 ‘명당

25) 李丙燾, 「호남문화의 배경」, 『호남전통문화론』, 호남문화연구소, 1999, 20면.

26) 『구비대계』, 백운사 전설(5-2, 500면), 사인봉(5-2, 605면), 산혈을 찢라 패가한 전설(6-1, 682면) 파랑새가 날아간 명당자리(6-5, 232면), 학정봉의 묘터(6-8, 856면), 형을 망하게 한 묘터(6-3, 631면), 학 두 마리가 날아간 명당(6-12, 33면) 지형 바꾸고 망한 욕심장이(6-6, 474면), (‘명당 파손담’은 명당을 얻고 과욕이나 금기 파기로 망하거나 명당을 파손하여 폐망한 이야기이다. 명당을 상점한 후 지관이 이야기한 금기를 지키지 않아서 파손시킨 경우, 外人에 의해 명당이 발설되어 파손된 경우, 과욕으로 이장하여 망하는 경우, 부자집의 악행을 징벌하기 위해 도승이나 이인의 출현하여

비보담²⁷⁾에 관한 화소를 모아 분류하였다. 여기에서는 명당을 획득하고 발복함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상점 후 복록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곧 명당을 얻었으나 금기를 어김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이야기, 어떤 지형에 미약한 부분을 인공적으로 보완하거나 제거함으로써 명당으로 가치를 얻는 경우 등 명당 자체의 응험에 관심을 둔 이야기군이다.

‘명당파손담’은 명당을 얻었으나, 수용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와 수용자의 과욕 때문에 금기를 파기하고 초래된 악운이나 수용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명당이 파기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금기가 어떤 형태로 파손되느냐에 따라서 과욕이나 수용자 의지로 금기파손의 경우 ‘금기위반형’이며, 수용자 의지와 무관하게 주체는 개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적 파기가 이루어진 경우를 ‘단맥형’으로 보았다.

A.

상위유형	하위유형	전국자료수	%	호남자료수	%
명당파손담	금기위반형	139	60%	25	73%
	단맥형	66	28%	6	18%
명당비보담		28	12%	3	9%
소계		233	100%	34	100%

B. 각 유형별 전국 자료 수에 대한 호남 자료수의 비율.

부추겨서 파손케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야기군이 있다.)

27) 『구비대계』, 초산리 배형국(5-1, 606면), 용천사에 얽힌 전설(6-2, 423면), 혈 잘린 용두리 지명유래(6-8, 213면). (비보란 풍수설에 의해 부족함이 있는 곳을 인공적으로 보완하거나 악운이 서린 지형에 대하여 인위적인 조형물로 악운을 누르고, 결함을 제거하는 등 인위적으로 명당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호남에서 비보담은 많이 보이지 않고, 지방 전설집에 미미하게 나타난다. 대부분 국가나 마을 공동체의 경우 행해지고 양택에 치중한 편이라 개인 비보담은 많지 않다.)

상위유형	하위유형	전국자료수	호남자료수	%
명당파손담	금기위반형	139	25	18%
	단막형	66	6	9%
명당비보담		28	3	11%
소계		233	34	15%

명당이야기는 전국 자료 수에 대비에 현저하게 약한 전승을 보인다. 단막형이야기 역시 전국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전승되나 호남전승집단의 관심을 끌지 못함이 주목할 만하다.

풍수설화 전체를 두고 볼 때, 호남에서 채록된 이야기군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전승력을 지닌은 앞에서 살펴보았음에도 오히려 ‘명당이야기’ 유형은 전승집단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명당파손담’의 하위유형인 ‘금기위반형’은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으나, 호남에서는 25편 조사되는 미약함을 드러낸다. 이 가운데 호남에서 조사되지 않은 이야기가 부잣집 며느리가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것을 싫어하여 집안의 혈을 끊고 패망한 이야기와 신도가 왕성하게 드나드는 것을 싫어하여 집안의 혈을 끊고 절이 폐사되었다는 것이다.²⁸⁾ 전국적으로 보이는 이 화소가 호남지역에만 구전되지 않고 있음을 단순히 이야기가 호남에 흘러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며느리가 살고 있는 부잣집은 손님의 왕래가 잦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 시집살이를 하게 된다. 시집의 살림에서 가사노동의 태반이 손님 치르기였을 며느리는 그 기대가치를 힘든 가사노동을 제거하는데 의지한다. 그리고 손님이 많은 이유를 알아내고, 혈을 제거하는 것이 며느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가치가 된 것이다. 자신에게 충족된 상황 -경제적 안정-은 인식되지 않고,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에서 비극은 시작하는데, 이는 며느리가 명당을 파기하고 예기치 않았던 패망이라는 결과를 안게 되

28) 『구비대계』, 손님 끊어 집안 망친 며느리(2-8, 480-481면).

는 것이다.²⁹⁾

이 이야기는 전승층의 의식에 따라 살피면 며느리가 겪은 일련의 사건을 부덕에 대한 응징으로 볼 수 있다. 부잣집이라는 당연히 베풀 줄 알아야 하며, 가진 자로서 타인을 배려해야 함에도 손님의 왕래를 거부하고 혈을 끊는 행위는 부덕이며, 그 대가로 패망을 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 이유가 아닌 또 다른 인식이 있다면, 이는 며느리가 갖는 속성에 대한 이해이다. 친연적 소속 집단을 떠나 남성을 매개로 이동이 생겨 인위적으로 부가된 속성, 즉 영입자이며 주변인인 속성을 갖는 것이다.³⁰⁾

이는 곧 시집살이라 말할 수 있다. 대가족 제도 아래의 시집살이는 육체적으로 치러야 할 노역도 어렵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이 이겨내기 힘든 것임을 민요나 부요에서 많이 보이는 시집살이의 노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며느리가 갖는 시집살이는 새로운 비극을 유발시키고 비장하기까지 하다.

호남의 설화 향유층은 ‘며느리의 부덕에 대한 응징’으로 해석하기보다 며느리가 갖게 된 비극성에 더 공감하였던 것 같다. 이미 앞 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사자생손형’이야기에서 처녀의 억울한 희생에 공감하지 않은 호남인의 심성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앞에 ‘지관이야기’나 ‘수용자이야기’에서 활발한 전승이 보이고 있는 설화는 ‘민중의 발랄하고 재치있는 사고와 기개’ 그리고 ‘양반을 속이고 명당을 획득한 통쾌감’, ‘영똥하고 예상 밖의

29) 신월균, 「한국풍수설화의 서사구조 의미와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89. 181면.

30) 장장식, 「풍수설화에 나타난 금기와 여성」,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 민속원, 1995, 129-132면.

결말을 맺는 이야기’ 등 규범을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를 지닌 이야기에 더 많은 공감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므로 오히려 머느리 행동에 대한 응징하기보다 연민을 느끼고, 비장미가 나타나는 이야기는 호남의 설화 향유층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듯하다.

이러한 근거는 ‘단막형’에서도 드러난다. 호남에서는 이여송에 의한 단막 2편과 도선이야기 1편, 일제시대 일인에 의한 단막이야기 3편이 전승된다.

이렇게 단막이야기가 전승력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타국에 의해 행해진 풍수 침탈의 결과 나타나는 비극적 상황에 대한 거부 의식으로 볼 수 있다. 단막이야기 대부분이 ‘산의 혈·맥을 잘라서 그 이후 인물이 나지 않았다’는 좌절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다. 국토가 타국인에 의해 맥과 혈이 잘렸다는 것은 비극적이고 참담한 상황이다. 물론 산의 혈이나 맥을 끊은 이유는 조선이 인물이 태어날 서기가 갖든 산세를 지니고 있어 타국인이 이를 두려워했다는 이유로 타민족에 대한 우월 의식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설화 속에 타국이 행한 단막 행위에 의해 조선 민중은 좌절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비극이 내재되어 있다.

전승집단은 이러한 비극적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예로 호남에 구전되어 온 단막형 설화 6편중 이여송이야기에서는 이여송은 자신의 조상 혈을 잘라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는 것으로 단죄한다. 또 일인에 의한 단막이야기 가운데 ‘삼례저수지’ 이야기에서는 “물을 다른 곳으로 돌린 후,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자 그 곳에 돌부처를 갖다 놓았다”라고 하여 전승집단 스스로 피해를 극복하고 좌절을 승화시킨다. ‘풍수설로 본 사산마을’ 이야기에서도 “일인들이 나무 벌목 후 홍사가 겁치자 나무를 다시 심어 이를 비보했다”하여 비극적 좌절은 승화되고 이겨내는 이야기로 전환되어 있다.

호남 설화 향유층은 비극적 패배가 내재된 단막이야기를 즐기지 않고 오히려 단막으로 인한 좌절에서 스스로 극복하고 이를 개척하려는 강인한 의지가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호남의 지리적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외세의 침략, 수탈의 참담함이 적었다는 것이다.

남도의 원격성은 전란 시에 병화를 피할 수도 있는 점도 있다. 역사적으로 북방 대륙으로부터 침입이 있었을 때도, 남도는 비교적 안전하였다. 남방의 왜구 침입이 심할 때도, 반도의 동남 해안에 비해서, 서남 해안에는 왜구의 출몰이 적었다. 임진왜란 때에도 타도에 비해서 남도는 왜병의 병화를 피할 수 있었다.³¹⁾

이와 같이 중앙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타지역에 비해 외세로부터 상대적인 안전지대였을 것이다. 게다가 임진왜란 당시 의병의 60%가 호남인이었음³²⁾을 볼 때도 호남인 스스로 외세로부터 지역 보전을 위해 싸웠을 것이며, 이러한 자구책은 병화로부터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을 것이다.

더불어 바다에 인접한 호남은 문물이 풍부하고, 도자기의 원산지였던 관계로 서해를 통하여 중국, 일본과의 해상 교류가 백제 시대 때부터 잦았다. 이런 많은 접촉은 외세에 대한 거부와 배타 의식을 갖기 보다는 오히려 개방적이고 타국에 대해 거시적인 안목을 일찍부터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단막형 이야기의 공감대 형성에 저해원인이 되었다.

4. 결 론

31) 장보웅, 「남도문화의 지리적 기초」, 『호남전통문화론』, 호남문화연구소, 1999, 70면.

32) 나경수, 앞의 글, 54면.

지금까지 풍수설화를 전국의 자료와 호남의 자료 분포를 통하여 설화에 내재된 호남집단의식을 추출해 보았다. 정리하면

첫째, 호남의 전승집단은 타 지역에 비하여 풍수설화에 드러난 운명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운명을 기다리고 따르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고 이겨내는 반운명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둘째, 비극적 상황에 대한 거부 의식이다.

풍수설화에 나타나는 비극적 이야기인 ‘외세에 대한 단맥’, ‘사자생손’, ‘부잣집 며느리’ 등의 비극적 결말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극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좌절과 패배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강인한 의지가 깃들어 있다. ‘사자생손형’의 이야기처럼 타인의 근거 없는 희생에 동조하지 않은 ‘의기’가 있음도 알 수 있다. 오히려 타인의 비극적 상황을 즐기기보다 ‘지관이 이야기’의 ‘위계성공형’처럼 해학적이며, 발랄한 사고 이야기의 전승을 더 사랑하는 순박한 심성을 지녔다.

셋째, 타 지역 전승층보다 역사, 사회적 인식의 개방성을 엿볼 수 있었다. ‘사자생손형’의 이야기에서 강하게 보이는 혈연보존의식이 호남의 개방적 성향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전승이 약화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 박제가, 『북학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구비문학대계』5·6.
- 강중탁, 『한국문학과 풍수설』, 백문사, 1989.
- 강진옥, 「전설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사연구』, 1996.
- 나경수, 「남도인의 인성구조」, 『호남전통문화론』, 호남문화연구소, 1999.
- 신월균, 「한국 풍수설화의 서사구조와 의미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이병도, 『호남문화의 배경』, 『호남전통문화론』, 호남문화연구소, 1999.
- 이희덕 외, 『한국사상의 원천』, 박영사, 1985.
- 임철호, 『설화와 민중의 역사의식』, 집문당, 1989.
- 장장식,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 민속원, 1995.
- 장장식, 「풍수설화의 유형 분류」, 『한국민속학』18, 민속학회, 1989.
- 장보용, 「남도문화의 지리적 기초」, 『호남전통문화론』, 호남문화연구소, 1999.
- 조희용, 『설화학 강요』, 새문사, 1989.
- 최운식, 「설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풍수의식」, 『한국의 풍수문화』, 박이정, 2002.

group, Pung-su Folk Tales of Honam

Kim Hyun-suk.

Pung-su folk tales is the story with the motif of theory of pung-su.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sciousness of traditional group shown in the literature through the medium of theory of pung-su not its ideological side. So it classifies the pung-su folk tales of Honam by types, examines the aspects of its development, compares it to the data distribution of pung-su folk tales in the whole country and researches the community sense, sense of value and historical sense of Honam people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distribution extracted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raditional group recognizes geomancer in the dimension of 'geomancer's technique and religious truth' They recognize that acquiring propitious site is possible only when God endows because it is unrealizable in the real world. Therefore it requires geomancer to reach the stage of religious truth beyond the technical dimension.

Second, the acquisition of propitious site will require the supreme cost necessarily. It is represented as practice of charities of final piety. To the contrary, propitious site cannot be obtained with greed, arrogance and evil behaviors and existing one is destructed. Then the people are based on the ethical view pursuing the virtue in the pung-su folk tales.

Third, it pursues anti-fatalistic human will. Pung-su folk tales are fatalistic from such viewpoint that good luck and virtue are obtained through 'propitious site'. However, traditional group has a confidence in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such a fortune and looks for propitious site actively by themselves.

Fourth, it has reality-oriented view. Change in fortune for the better pursued in pung-su folk takes concentrates on real problems such as promoting to higher government position, better life, marriage or getting soon. It means that it shows the group's will to settle the real problems before them through propitious site. Such a reality oriented view is immanent in pung-su folk tales and is embodied as reality-oriented idea for change in fortune of traditional group.

주제어 : 풍수설화, 수용자, 지관, 명당, 호남 전승집단의식, 순후성, 개방성.